

작품 개요

「별과 새에게」는 윤근강(尹崑崗, 1911~1949)의 시를 가사로 한 곡으로서 26세 되던 1948년 12월 31일 작곡되었고, 1987년 6월 19일 수정되었다.

이 곡은 1952년에 발행된 나운영의 첫번째 가곡집 『아흔 아홉 양』에서 출판되었다.

작곡자가 제시한 연주법

- 1) '만약 내가 속절 없이 죽어 어느 **고요한** **풀**섬에 묻히면 **말하지 못한**' 에서 강조한 음을 Tenuto로
- 2) '밤이면 **눈물**어린' 에서 강조한 음을 Tenuto로
- 3) '금빛 **눈동자** **별**떼가' 에서 음정에 주의할 것
- 4) '**나는 울지** 말자 **슬피 울지** 말자 내가' 에서 강조한 음을 Tenuto로
- 5) '뜻을 **품고** 가리라' 에서 '품고' 다음에 숨을 쉴 것. '가리라' 음정 주의할 것.
- 6) '나의 명이 다하여 내가 죽는 날' 다음에 충분히 숨을 쉰 다음에 '나는 별과 새에게' 는 낭독조로, 말하듯이, 속삭이듯.
- 7) '지니고 간 나의 슬픈 이야기를 말해주리라' 다음 간주를 부각시키되 특히 왼손을 강조할 것, 그리고 Arpeggio는 조금 느리게, 그 다음에 충분히 쉬고 새 기분으로.

13.

M.M.J. = $\text{♩} = 120$

별과 새에게

尹 崑 蘭 作 詞
李 瑞 濤 作 曲

M.M.J. = *cmt*

Allegro moderato

말 너가 승 평없이 죽어 어 느 고향을 살에 품어 버린 말

하의 못한 너가 분이야 키 는 술이 사는 짝은 새 가 노래 해주

고 밤이면 - 눈물어 린 금빛은 동자별 - 009